



농림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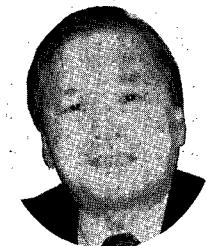
차관에 이석채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제2차관보에 김동태 전 산림청 차장, 산림청 차장에 김정룡 전 제2차관보를 각각 임명



△이석채 차관



△김동태 제2차관보



△김정룡 산림청 차장

정부는 농안법 파동과 관련하여 지난 23일에 이석채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차관에 임명하였으며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제2차관보에 김동태 전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 차장에 김정룡 전 제2차관보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

신임 이석채 차관은 경북성주(49) 출생, 서울대 상대졸, 미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비서관, 청와대 SOC투자기획단 부단장,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1일부로 단행된 국장, 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 국장급 전보 : 손찬준(농업협력통상관), 이영래(농산물 유통국장), 천중인(농촌경제연구원 파견)

- 과장급 전보 : 김정호(기획예산담당관), 강동제(시장과장), 이준영(표준가공과장)

축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농림수산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UR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경쟁력제고 대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축종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낙농·한우 경쟁력 제고대책”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전무가 “양돈산업 발전대책”에는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이 “양계(육계)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는 (주)하림 김홍국 사장이 발표 하였는데, 특히 양계산업에 있어서는 통합경영 방식에 의한 계

열화사업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것이 경쟁력제고의 첨경임을 강조하고 향후 육계산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공청회에 이어 각 지방공청회도 개최해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94년 5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키로했다.

계란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전국양계협조합(대표 강희구)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관광 호텔에서 「계란유통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계란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으로 UR를 극복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상인의 공동이익 추구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계란유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란공판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규성 전무가 참석했다.

'94년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 개최키로

'94년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를 오는 6월 24일 ~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진주소재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회별 행사에 이어 25 일에는 학술대회 및 관광도 겸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축산환경안전성학회 정식 출범

한국축산환경안전성학회(회장 이재진)가 지난 6일 잠실동 소재 교통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에는 연간 2조원 이상에 달하는 동물약품과 사료, 사료첨가물, 위생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고품질의 안전축산물을 원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연구에 있어 부실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회가 발족되었으며, 향후 축산에 이용되는 동물약품과 사료 등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 위생적인 고품질의 안전축산물생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 대두박값 내림세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톤당 C&F 기준 미산 2백50달러, 중국산 2백18달러, 브라질 2백19달러, 알젠텐 2백15달러로 한달 전에 비해 8달러, 2달러, 6달러, 10달러가 각각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정책 세미나 개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2시 종로5가 소재 경실련 대강당에서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UR일괄타결로 기로에 선 「양축농가의 숙원정책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현 교수의 발제에 이어 재무부 김낙희 세제실사무관,

농림수산부 김남철 초지사료과장, 양돈협회 노영한 전무, 낙농육우협회 김인식 부장, 양계협회 김용화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계산업계열화 방향과 수출전망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농정연구포럼이 주최한 「양계산업계열화 방향과 수출전망」에 대한 정기 세미나가 지난 14일 농정연구포럼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계분야는 (주)하림 김홍국 사장이 “양계산업계열화 방향과 수출전망”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찬모(우인신업 전무), 한형석(대연식품 사장), 김정주(건국대 교수), 김용화(양계협회 부장), 김상철(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농업연구관)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94전국수의사대회 개최

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수의학회, 대한임상수의학회 주관하며, 농림수산부, 축협, 안양시,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후원한 “'94전국수의사대회”가 지난 26일 ~ 27일 양일간에 걸쳐 안양시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대회에서 대한수의사 이길재 회장이 “급변하는 세계속에 약진하는 수의직무”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아시아 지역 수의산업의 미래”, “2천년대 수의사의 역할과 전망”, “동

물을 통한 인간의 정서함양”, “복지사회에서의 수의사 윤리”, “한국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 개선방안”, “약사법개정에 따른 수의사의 동물약품 취급”에 대한 특강에 이어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식품의 안정성과 해외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움도 겸하여 실시되었다.

축협 낙농위원회 출범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6일 13명으로 구성된 낙농위원회를 구성시킴과 동시에 백영주 공주낙협장을 위원장으로, 오상호 대구우유조합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가축분뇨 처리이용 방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최근 그린라운드(GR)에 대비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이용에 대한 모형을 제시코자 축산시협장이 주최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방법”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전10시 축산시협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처리현황과 아울러 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이용과 문제점 분석, 가축분뇨처리와 농촌환경 개선대책(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농·발 중간보고와 관련 각종 축산 관련 사항 조속히 실시키로 요청

본회를 비롯한 14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최근 농·발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단체장들의 회의를 갖고 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료곡물관세의 영세율 적용을 비롯한 축산에 관련된 사항을 조속히 실시해 줄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료곡물 관세의 영세율 적용 조속실시
- 가축분뇨처리의 투자 확대와 유기질 비료화
-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식물 검역제도의 확대 강화
- 도축장의 산지 이전에 대한 편의 제공(자금, 부지 등).
- 품목별, 축종별 전문조합 육성 광역조직화 함으로써 생산자 단체의 유통기능과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협동조합, 영농조합).
- 존폐위기의 농수산고교를 자영농민 양성을 위한 자영농수산 고교로 개편하고 전문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농수산 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시범운영.

축산경영지도에 필요한 축산전문교육 실시

전라북도종축장(장장 : 김용길)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라북도 종축장 병설 연수소에서 각축종별(축우, 양돈, 양계)로 “UR대응 및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에

관한 ’94축산경영 지도에 필요한 축산 전문 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전북도청 백승은 과장, 전북종축장 김용길 장장, 축산시험장 이인형 장장, 전북도청 재효석 계장, 서울대 황우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김인식 부장, 전북대 김용준 교수, 대한양돈협회 노영환 전무, 전북도청 이준익 계장, 농진청 김상철 연구관, 대한양계협회 김용화 부장 등이 전문가로 초빙되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양계분야는 본회 김용화 편집부장이 “양계 경쟁력 제고방안”란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농발위 활동보고 평가회 개최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우리 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그간 추진해온 “농·발·위 활동 최종보고 평가회” 가지난 26일 이촌동 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활동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제1부 개회식, 제2부에서는 정성현(우리말본부장), 박덕영(한농연회장), 윤정석(전농의장), 정장섭(농기협회장), 정원석(국본집행위원장), 김성훈(중앙대교수), 김시약(농기협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그간 농발위 활동보고에 이어 주제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제3부에서는 농정개혁 감시단 추진위원회 결성선언문 채택도 겸하여 실시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